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Symposium Organizer 모집 (새로운 발표 형태와 새로운 진행을 모색하며)

우리 고분자학회는 발표논문 편수와 참가인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도 추계학회의 경우 50여편의 특별강연과 730여편의 일반연구논문 발표 그리고 참가인원 천여명의 대규모 학술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학술회의는 발표논문 편수와 참가인원에 있어 국내 어느 학회의 학술대회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발표되는 논문의 질적인 면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에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으며 연구분야도 상당히 다양해졌음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및 발표논문의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가 하루 반 남짓한 짧은 기간과 대학에서 개최되다 보니 원활한 학술대회의 진행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틀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개최 장소로 대학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 학회가 앞으로 당분간은 지니고 가야 할 제약사항이지만 ‘연구결과’의 발표, 의견교환과 연구논의’라는 학술대회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표 형태와 진행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학회 차원에서 또는 회원 상호 간 논의되어 얻은 결론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symposium 형식을 더욱 보완하여 상당수의 발표를 symposium 형태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일반적인 고분자합성, 물성, 기능성고분자 분야와 특화되어 있는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와 분자전자 부문위원회와 더불어 몇 개의 특별 symposium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보다도 symposium 발표를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symposium의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고분자 분야 이외에도 NT, BT, ET 등 고분자와 관련된 타 분야의 symposium 개최를 통하여 타 학문분야 및 관련산업과의 연계성도 더욱 증대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symposium organizer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사들을 한자리 모아 공통관심사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계 또는 장래 고분자학회 학술대회에서 symposium을 구성하시기를 원하는 회원께서는 symposium 주제, 3명 이상의 예상 초청연사 사항을 기재하시어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낙중 교수 kimnj@hanyang.ac.kr, 부위원장: 이준영 교수 jylee7@skk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 김낙중(한양대학교 화학과), 학술위원회부위원장 : 이준영(성균관대학교 응용화학부)

위원 : 김도현(SK Chemicals), 김동유(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영진(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박철민(연세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과), 손병혁(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안철희(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재용(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이진호(한남대학교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이택승(충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정명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희태(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조준한(단국대학교 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최동문(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대학), 한동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한은미(전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